

2026년 10월 16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유동성 증가세 둔화 속 경제주체별 차별화에 주목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M2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5.6%로 전월(5.8%)보다 둔화되었다. 지난 6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둔화 영향이 점차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주체별 유동성 흐름에서는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M2 보유액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비금융기업은 20.3% 증가하며 오히려 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주체별 자금 여건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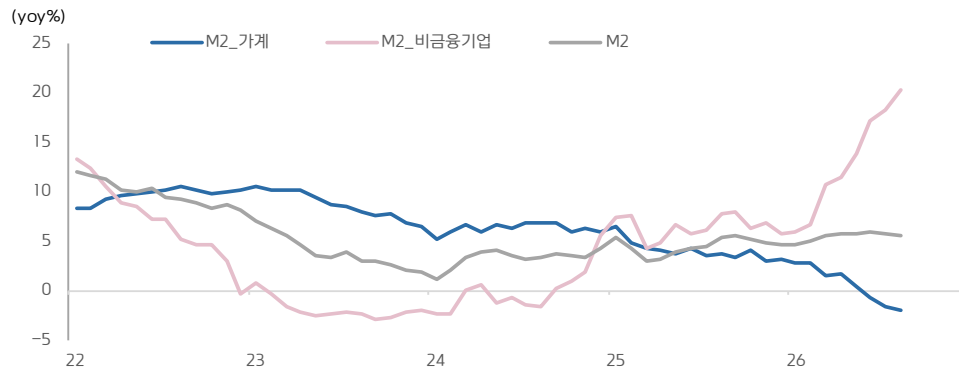
과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 전반의 유동성 둔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재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와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등이 긴축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현금창출력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역시 기업 부문의 유동성 여건을 뒷받침할 수 있다. 반면 가계는 높은 금리 부담과 신규 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제약되고 있어, 향후 소비와 내수 경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들의 양호한 유동성 여건이 향후 경제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확보한 유동성이 설비투자, 주주환원, 임금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연결된다면 전체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자금의 순환은 오히려 활발해질 수 있다. 설비투자 확대는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하고, 임금 및 성과급 증가는 가계의 소득과 소비 여력을 개선할 수 있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가계와 투자자의 금융자산 및 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총량적인 유동성 증가율 둔화가 반드시 경제활동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이 지속되면서 기업 부문의 유동성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책금융과 기업이익 증가에 따른 유동성 개선 효과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에 집중될 경우 전통산업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과의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결국 향후 유동성 환경을 평가하는 데에는 M2 증가율 자체뿐 아니라 기업 부문에 축적된 유동성이 실제 투자와 소득, 소비로 얼마나 확산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Macro Snapshot

한국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